


조계종은 12월 11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37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여 스님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포교대상 영광의 주인공들(앞줄 왼쪽부터 원력상 박옥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사무팀장·경남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지도법사 법광 스님, 대상 정여 스님, 공로상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원력상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 사무국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 정여 대종사 "수행 포교 진력하겠다"

**조계종, 12월 11일 시상식 개최**
**포교 현장 공로자들 시상·격려**
**진우 스님 "사회 밝히는 등불"**
**정여·법해 스님 포교기금 쾌척**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정여 스님은 포교대상 상금 1000만원을 포교진흥기금으로 쾌척했다.



법해 스님도 2000만원을 포교진흥기금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불교 포교 현장 공로자들을 치하하는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7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여 스님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은 일선의 포교현장에서 이룩한 전법과 포교의 결실을 종단적 관심과 격려로 함께 나누며 그 뜻을 굳건히 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포교대상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원로의원)가 수상했다. 정여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포교 및 인재양성, 사회복지 및 나눔 실천, 종교 화합·평화운동, 지역사회 발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그 공을 인정받았다.

정여 스님은 "출가자 본분에 따라 수행과 포교에 진력했고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신도 포교를 꾸준히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종단에서 더 많이 부처님 말씀 전하고  포교 더 하라는 뜻에서 준 상으로 생각하며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여 스님은 포교대상 상금 1000만원에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포교진흥기금으로 쾌척했다.

공로상은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과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이 받았다. 법해 스님은 "앞으로 진관사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상이라 생각하고 더욱 정진하겠다"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정성을 모아 부처님 법이 세상 속으로 가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해 스님도 이날 2000만원을 포교진흥기금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원력상은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지도법사 법광 스님과 박옥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사무팀장,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 사무국장에게 돌아갔다. 법광 스님은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성 함양 교육에 헌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의 포교대상 주인공에게 주어진 트로피는 조계종 문장인 삼보륜을 품고 있는 연꽃을 형상화했다. 상단의 삼보륜을 감싸는 4장의 연꽃잎은 사성제를 의미하고 그 아래를 4장의 연꽃잎으로 감싸 팔정도를 표현했다. 또 그 아래 4장의 연꽃잎까지 모두 합하면 십이연기를 상징화해 부처님의 근본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겼다.

시상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 법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온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한 명 한 명의 공덕은 어느 한 분야에 머물지 않고 한국불교 전체의 기둥을 이루며 우리 사회와 자비와 평화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면서 "갈등과 분열, 불안과 상실이 깊어지는 시대적 고비를 맞이한 이때, 수상자들이 보여준 자비와 상호존중, 연대와 공감의 힘은 우리 사회를 다시 밝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크나큰 등불"이라고 말했다.

수상자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법을 품고 살아온 포교현장의 주역"이라고 표현한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실천으로 열어온 이들의 원력은 한국불교 중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공동체 치유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늘의 공덕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부처님 전도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밝의 모든 순간을 전법의 길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시상식을 주최한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인사말에서 수상자들의 원력과 자비 실천이 포교 현장의 불자들에게 길이 남을 귀감이 되길 기원했다. 스님은 "수상자들의 공적을 널리 드러내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부대중 모두가 전법 포교에 매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수상자의 일상과 사회 각 분야에 뿌려놓은 선근공덕은 많은 이들을 안락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축사에서 "중단없는 정진은 개인 공덕을 넘어 종단의 기틀을 단단히 세우는 힘이며 나아가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이루는 귀중한 실천"이라며 "현장에서 밝힌 작은 등불 하나하나는 마침내 이 사회를 비추는 큰 광명이 돼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널리 퍼지는 길을 만들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포교대상은 활발한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1987년 제정됐다. 1988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올해 37회를 맞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각 계층, 직장직능, 사회문화 등 다양한 포교 현장에서 대중과 함께 하며 불교발전에 헌신한 개인 417명, 사찰 및 단체 20곳, 총 437명에게 수여됐다.

##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

### 대상(종정상) 정여 대종사



정여 대종사는 부산 불교계의 복지와 나눔 실천 선구자로 꼽힌다. 부산 최초로 불교계 사회복지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법인을 설립, 개금사회복지관장 소임을 시작으로 부산 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또 네팔·캄보디아 등 국제 구호 활동을 통해 자비 실천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및 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섰다. 어린이법회 활성화와 지도자 양성에 앞장서며 대한불교교사대학 설립과 어린이 포교단체였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사단법인 동련으로 법인화해 체계적 포교 기반을 마련했다. 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청소년 문화·봉사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했고 장학사업과 대학 불교동아리 후원으로 미래불자 육성도 힘썼다.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범어사 주지 및 부산불교연합회장을 맡아 지역 불교계 통합과 발전에 기여했다. 또 종단 법계위원을 역임하고 현 원로의원으로서 종단 제도 강화와 미래 비전 제시에 힘쓴 점, 종교간 연대 활동을 통해 공동선 실천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 공로상(총무원장상) 법해 스님



법해 스님은 대통령 및 정부 주요 인사 초청 행사를 다수 봉행하며 불교의 국가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여성불자대회 샤카디타, 정전 70주년 수륙재 등 국제·사회적 의미를 담은 대형 불교행사를 주관했다. 외신기자단, 대사부인단, 태평양도서국 영부인 대상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포교 기반을 확장했다.

포교활동도 다각적으로 펼쳤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관사 도량 정비 불사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어린이·청소년·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미래 불자 양성에 힘썼다.

대사회적으로는 '진관사 태극기'의 항일정신을 재조명했으며 수륙재를 통해 사회적 치유 콘텐츠 개발 등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시켰다. 또 산사음악회, 웰니스 대축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불교의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바쁜 일상 속 잃어버린 쉼표,
진관사 단기출가학교 '한 걸음'

■ 수행기간 : 2026년 1월 20일(화)~1월 26일(월)/ 6박 7일
■ 접수기간 : 2025년 12월 7일(일)~12월 30일(화)
■ 모집대상 : 출가체험 희망자,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대중생활이 가능한 자, 불교에 관심이 있는 17세~59세 성인여성
■ 모집인원 : 15명
■ 신청방법 : 진관사 단기출가학교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jinkwansa.org/html
E-mail접수 : jintem359@naver.com
■ 전화문의 : 02-359-8410, 010-2081-8410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2026년 학술세미나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 V

'검증할 자료는 있었고, 검증은 하지 않았다'

본 연구원은 근대 제주불교 역사와 1918 법정사 항일운동 역사 왜곡 현황을 고찰하고, 사실의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었을 때 비로소 선인(先人)의 묻힌 궤적도 드러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6년 1월 10일 (토) 13시 ~ 17시
장소 :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제주시 오복4길 25)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